

## II-4. 상악 전치부 조직 유도 재생술의 실패 시험례

이은선, 김형섭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치주 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은 치주질환에 이환된 치근면에 신생 백악질의 침착, 신생골 형성, 새로운 치주인대 섬유층의 삽입 등이 이루어져 치주조직의 구조와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며 이러한 재생을 위해 조직 유도 재생술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조직 재생술은 모든 경우의 치주질환 이환부에 사용할 수 없고 술자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기 어렵다.

좋지 않은 결과를 야기하는 요인이 1996년에 evidence-based World Workshop in Periodontics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① 부적절한 치태조절 ② 유지치료에 대한 협조도 결여 ③ 흡연 ④ 판막의 설계, 결손부와 치근의 형태, 사용된 재료, 판막의 위치, 술 후 관리와 같은 요인들.

결정적인 증거가 있지는 않지만 그 밖의 환자의 연령 및 전신상태, 술자의 숙련도 및 경험, 예방적 투약이 필요한 것도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다.

본 증례들은 전신적으로 건강한 20대 환자의 상악 전치부에 조직 유도 재생술을 시행하여 좋지 않은 결과가 관찰된 증례이다.

### 증례 1

Implant 식립 전 치근단 부위의 골 결손부 치유를 향상시키기 위해 조직 유도 재생술을 시행한 후 6개월이 지나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 re-entry했을 때 조직 재생이 되지 않아 이식 재를 모두 제거하고 조직 유도 재생술을 재 시행함.

### 증례 2

치은 천공 및 농 배출을 주소로 내원하여 판막 거상 후에 #11은 치근단 절제술을 시행하고, #12 수직 파절 관찰되어 발치하고 치근단부 육아조직 적출 후 조직 유도 재생술을 시행하고 술 후 10일에 염증 양상과 막의 노출을 보여 막을 제거하고 초기 폐쇄를 위해 구개 측에서 유경 판막을 이용하여 술부를 피개함.

### 증례 3

Implant 식립 전 치조제 협착의 골 결손부를 재건하기 위해 조직 유도 재생술을 시행한 후 1달 후에 염증양상을 보여 시술 2달 후에 막을 제거하고 시술 7달 후에 치은이식을 시행함.

위의 증례들을 통해 조직 유도 재생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